

매크로(거시경제) 공부 요약

0단계부터 7단계까지 · 비유 중심 복습 노트

전체 한 장 지도

지표(1~3단계) → 연준의 페달 결정(4단계) → 할인을(5단계) → 주가, 여기에 돈의 양·흐름(6단계)과 환율(7단계)이 더해져 '지금 어떤 국면인가'로 묶인다

0 네 기둥과 순환 고리

비유 경제 = 자동차 한 대. 네 개의 계기판이 돌아간다.

네 기둥	성장(속도) · 고용(탄 사람) · 물가(엔진 온도) · 통화정책(운전자).
순환	성장↑ → 고용↑ → 임금·소비↑ → 물가↑ → 연준 브레이크 → 성장↓ ... 끝없이 한 바퀴.
핵심 긴장	성장과 물가의 줄다리기. 연준은 둘을 동시에 못 잡아 영원히 줄타기.
연준 = 운전자	금리 인하 = 액셀(주식 순풍) · 금리 인상 = 브레이크(주식 역풍).
좋은 뉴스의 역설	시장은 '지금'이 아니라 연준의 '다음 수'에 반응 → 고용 호조가 주가 하락을 부르기도(good news is bad news).

한 줄 정리 네 기둥은 하나의 고리로 돈다. 연준은 그 위에서 액셀·브레이크를 밟는 운전자.

1 성장 지표 — 속도계

비유 경제라는 차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나.

GDP	GDP(Gross Domestic Product ·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— 국내총생산). 나라가 번 것의 총합. 정확하지만 분기마다 늦게 나오는 속도계.
PMI	PMI(Purchasing Managers' Index · 퍼처싱 매니저스 인덱스 — 구매관리자지수). 구매 담당자 설문 → GDP보다 빠른 선행 속도계. 50이 기준선 (위=확장, 아래=수축).
ISM	ISM(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· 인스티튜트 포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— 미국 공급관리협회)이 내는 미국 PMI. 뉴스의 'ISM 제조업지수'가 이것.
투자 연결	제조업 PMI 회복 → 공장 가동↑ → 칩·기판 수요↑. 반도체 종목의 배경 신호.

한 줄 정리 성장 = 차 속도. GDP는 늦고 정확, PMI는 빠른 선행 신호. PMI는 50이 기준선.

2 물가 지표 — 엔진 온도계

비유 경기가 과열돼 물건값이 오르고 있나(인플레이션).

CPI	CPI(Consumer Price Index ·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— 소비자물가지수). 우리가 사는 장바구니 값. 가장 유명.
PPI	PPI(Producer Price Index ·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— 생산자물가지수). 공장 출고가 → CPI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선행 신호.
PCE	PCE(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·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스 — 개인소비지출). 연준이 가장 중시 하는 물가.
헤드라인 vs 코어	코어 = 출렁이는 기름·식료품을 뺀 물가 = 끈적해서(sticky · 스티키 — 잘 안 내려가는) 잘 안 빠지는 진짜 흐름.
가장 중요한 숫자	코어 PCE = 연준이 보는 물가에서 잡음 뺀 핵심. 브레이크 여부를 가장 잘 보여줌.
한 줄 정리	같은 온도를 세 곳에서: 우리가 사는 값(CPI)·공장 값(PPI, 선행)·연준이 보는 값(PCE). 코어 PCE가 핵심.

3 고용 지표 — 차에 탄 사람

비유 일자리가 느나 주나. 그리고 그것이 물가로 이어진다.

ADP	ADP(Automatic Data Processing ·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— 급여대행 회사). 수요일에 먼저 나오는 민간 고용 '예고편'.
NFP	NFP(Nonfarm Payrolls · 년팜페이롤스 — 비농업 고용). 금요일에 나오는 정부 공식 '본편'. 일자리 증가 수.
실업률·임금	실업률은 너무 낮아도 연준 긴장(임금 자극). 임금상승률이 물가와 직접 연결돼 가장 민감.
핵심 고리	고용↑ → 임금↑ → 소비↑ → 물가↑ → 연준 브레이크. 고용 호조가 주가 역풍이 되는 이유.
이중 책무	dual mandate(듀얼 맨데이트 — 이중 책무): 물가 안정 + 완전 고용. 서로 잡아당겨 연준은 늘 저울질.
한 줄 정리	고용 → 임금 → 소비 → 물가. 너무 뜨거우면 연준이 브레이크. ADP(예고편)→NFP(본편).

4

통화정책 — 운전자 (중심축)

비유 1~3단계 지표가 전부 여기로 모인다. 운전자가 페달을 정하는 곳.

연준	Fed(페드 — 연방준비제도). 미국 중앙은행 = 운전자. 손에 쥔 페달이 금리.
FFR	FFR(Federal Funds Rate · 페더럴 펀즈 레이트 — 연방기금금리). 연준이 직접 정하는 기준금리 = 모든 금리의 출발점.
FOMC	FOMC(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·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 — 연방공개시장위원회). 1년 8번 금리 결정. 달력에 빨강게 박는 날.
점도표	dot plot(닷 플롯 — 점 그림). 위원들이 찍는 미래 금리 계획표. 위로 몰리면 긴축적.
의장 톤	매파(hawkish · 호키시 — 공격적, 브레이크) vs 비둘기파(dovish · 더비시 — 온건, 액셀). 같은 동결도 톤으로 같림.

한 줄 정리 지표가 FOMC 테이블에 모인다. 시장은 결정 + 점도표(미래) + 의장 톤으로 '다음 수'를 읽는다.

5

전이 메커니즘 — 배관 (심장)

비유 연준의 페달이 어떻게 주가까지 전달되나.

배관 순서	연준 기준금리 → 국채 10년물 금리(Treasury · 트레저리 — 미국 국채) → 할인율 → 주가.
할인율	discount rate(디스카운트 레이트 — 할인율). 미래의 돈은 지금보다 가치가 낮다 → 깎아서 계산. 금리↑ → 할인율↑ → 더 많이 깎임.
주가의 정체	주가 = 회사의 미래 이익을 현재가치로 깎아 더한 값(가게를 미래 수익으로 사는 것과 같음).
왜 놀리나	회사가 버는 건 그대로인데 깎는 칼(할인율)이 날카로워져 현재 매긴 값이 작아짐. 빚 없는 회사도 해당.
성장주 응용	먼 미래 이익일수록 더 심하게 깎임 → 이익이 먼 미래에 몰린 성장주(반도체·AI)가 금리에 더 크게 출렁.
두 경로 구분	대출 이자↑로 실제 이익 감소(빚 있는 회사) 할인율↑로 현재가치 감소(모든 회사). 보통 동시 작동.

한 줄 정리 주가 = 미래 이익의 현재가치. 금리↑ → 할인율↑ → 더 깎임 → 주가↓. 먼 미래의 성장주가 더 크게 맞는다.

6

유동성과 신용 — 돈의 양과 흐름

비유 금리(값)와 별개. '지표 멀쩡한데 왜 빠지지?'의 답.

유동성	liquidity(리퀴디티 — 유동성). 시중에 풀린 돈의 양. 넘치면 자산으로 흘러 가격↑(유동성 장세), 마르면 멀쩡한 증폭도↓.
QE / QT	QE(Quantitative Easing · 쿼ン티테이티브 이징 — 양적완화) = 돈 풀기(순풍). QT(Quantitative Tightening · 쿼ン티테이티브 타이팅 — 양적긴축) = 돈 거둬들이기(역풍).
신용	credit(크레딧 — 신용). 그 돈이 실제로 도는가. 기업은 은행 대출 또는 채권(bond · 본드 — 차용증) 발행으로 빌린다.
신용 스프레드	credit spread(크레딧 스프레드). 기업 채권 이자 국채 이자. 벌어지면 = 공포·돈줄 경색 경보. 주가 하락보다 먼저 벌어지기도.

한 줄 정리 유동성 = 돈의 양(QE/QT), 신용 = 돈이 도는가(스프레드). 지표 좋아도 이게 마르면 시장은 빠진다.

7

환율·글로벌 + 종합(레짐)

비유 미국 매크로가 한국까지 건너오는 다리, 그리고 전체를 한 장면으로.

환율 기본	1달러 = 1,530원은 '달러의 가격표'. 숫자↑(1,300→1,530) = 달러 비싸짐 = 원화 약세. 숫자↓ = 원화 강세.
건너오는 다리	미국 기준금리↑ → 돈이 미국으로 → 달러 강세·원화 약세 →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고 이탈 → 코스피·반도체 수급 부담.
미·한 금리차	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을수록 외국인 이탈 유인↑. 달러인덱스(DXY · 디엑스와이 — 달러 가치 지수)로 달러 강세 확인.
레짐	regime(레짐 — 국면). 성장(↑↓) × 물가(↑↓)의 조합. 골디락스(성장↑물가↓)부터 스태그플레이션(성장↓물가↑)까지 4국면.
최종 사고법	매일 숫자에 일희일비 말고 '오늘 데이터가 국면을 바꾸나/그대로 두나'만 갱신. 거기서 내 종목까지 한 줄로 연결.

한 줄 정리 환율 숫자↑ = 원화 약세. 미·한 금리차 → 외국인 수급 → 코스피. 성장×물가로 국면을 읽고 종목까지 연결.

한 줄로 펜 전체 인과

연준이 기준금리↑ → 돈 빌리기 어려워짐(브레이크) → 국채금리↑(채권 가격↓) → 할인율↑ → 미래 이익의 현재가치↓ → 주가↓ (+ 유동성 마름, 원화 약세) → 성장주일수록 더 크게.

복습 팁: 이 PDF를 덮고 백지에 0단계 톱니바퀴 → 7단계 흐름을 직접 그려보세요. 막히는 칸이 약한 곳입니다. 그리고 '고용 호조 → 주가는?' 같은 상황을 한 문장 인과로 말해보면 진짜 소화됐는지 확인됩니다. ※ 매크로는 '바람의 방향'이지 매매 신호가 아니며, 실제 매매는 차트·수급을 따로 봅니다.